

기묘명현 안처순(安處順, 1492-1534)의 우정론

— 「사제편(思齊篇, 1521)」의 ‘봉우(朋友)’ 편을 중심으로

엄국화*

-
- I. 들어가는 말
 - II.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
 - III. 『근사록(近思錄, 1519)』과 『사제편(思齊篇, 1521)』
 - 1. 봉성정사본 『근사록』과 『사제선생실기(思齊先生實記, 1820)』
 - 2. 『사제편』의 구성
 - IV. 『사제편』의 우정론
 - 1. ‘이문회우(以文會友)’의 우정
 - 2. ‘구이경지(久而敬之)’의 우정
 - 3. ‘아빈불배(我殯不拜)’의 우정
 - V. 나가는 말
-

■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16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사제당 안처순(思齊堂 安處順, 1492-1534)의 행적을 살피고 그의 문집 『사제선생실기(思齊先生實記)』 중 『사제편(思齊篇)』의 의미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그동안 안처순이 기묘명현(己卯名賢)이었고, 『기묘제현수첩(己卯諸賢手帖)』의 주인공이었음은 나름 학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구례현감으로 『근사록』을 출간한 것과 기묘사화 직후 『사제편』을 저술한 것 등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은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사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원 / E-mail: goocaa79@gmail.com

서(四書)에서 직접 선별한 문장들과 주석들로 구성된 『사제편』 중에서도 하권의 '봉우' 편에 세 문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논어』에서 가져온 세 문장은 '이문회우(以文會友)', '구이경지(久而敬之)', '아빈불배(我殯不拜)'의 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기묘명현 안처순의 우정론의 경전적 근거가 된다.

주제어 : 안처순(安處順), 사제당(思齊堂), 사제편(思齊篇), 근사록, 우정론

I. 들어가는 말

16세기 후반은 조선 성리학의 전성기였다. '사단칠정논쟁'이 일어났고, 더불어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 1568)』와 율곡 이이의 『성학집요(聖學輯要, 1577)』라는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책들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전반까지는 기묘사화(1519)와 을사사화(1545)로 대표되는 사화의 시대였고, 조광조 등을 비롯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화를 입었다.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직 완숙하지는 못했으나 분명 성장의 동력을 품고 있던 시대였다.

이 글에서는 16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사제당 안처순(思齊堂 安處順, 1492-1534)의 행적을 살피고 그의 문집 『사제선생실기(思齊先生實記)』¹⁾ 중 『사제편(思齊篇)』의 의미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그동안 안처순은 기묘명현(己卯名賢)이고, 『기묘제현수첩(己卯諸賢手帖)』이 기묘명현과의 교유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안

1) 사제당기념관(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지면)에 1820년에 제작한 『사제선생실기(思齊先生實記)』 목판이 보관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는 『사제편』 목판본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필사본을, 하버드대학교 앤칭(燕京)도서관은 『사제집(思齊集)』과 『사제선생문집(思齊先生文集)』이라는 서로 다른 제목의 목판본들을 소장하고 있다.

처순의 학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처순은 기묘사화를 당해서 귀양간 동지들을 보살피고 돌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조선 성리학의 전환기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유학자였다.

안처순은 문헌학에서는 『근사록』 간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의 최대 역작인 『사제편』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사제편』은 안처순이 사서(四書)에서 직접 선별한 문장들과 주석들로 구성된 책으로, 이를 살피는 것은 퇴율 이전 성리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안처순 이후에 등장하는 조선 성리학자들의 저술, 특히 퇴계의 『성학십도』와 율곡의 『성학집요』에까지 이어지는 기묘사립들의 정신이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텍스트가 『사제편』이기 때문이다.

II.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

안처순과 동시대 인물인 사재 김정국(思齋 金正國, 1485-1541)은 「기묘당적(己卯黨籍)」에서 안처순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안처순의 자(字)는 순지(順之)이며 갑술년에 급제하였다. 홍문관 박사로서 있다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고을 현감이 되기를 청한 다음 파직되었다.²⁾

『사재집(1603)』에 수록된 「기묘당적」이 안처순의 생애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안당(安瑒, 1461~1521)의 손자 안로(安輅, 1635~1698)가 「기묘당적」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묘록

2) 金正國, 『思齋集』, 권4, 「己卯黨籍」, “安處順。字順之。登甲戌及第。以弘文博士。爲親乞縣。罷。”

보유(己卯錄補遺)』를 편찬하면서, “남원에서 대대로 살았다. 정축년에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구례 현감 자리를 청하였다.”³⁾라는 문장을 추가했다. 그리고 이어서 충암 김정(冲庵 金淨)의 시 두 편과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의 시 한 편을 붙였다. 청장관 이덕무(靑莊館 李德懋, 1741~1793)의 「한죽당섭필(寒竹堂涉筆)」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으로 보완된 사제당의 생애는 다음과 같다.

안처순의 자는 순지이니 문성공 안유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전적을 지낸 안기이고 어머니는 조양 임씨이다. 처순이 태어난 지 6세에 아버지 안기가 졸하였으므로 증부 판서 안침의 집에서 자랐다. 그는 정덕 계유년(1513, 중종 8)에 진사에 합격되고, 갑술년(1514, 중종 9)에 병과로 등용되어 예문관 검열과 홍문관 정자를 거쳐 무인년(1518, 중종 13)에 구례 현감에 제수되었다. 그런데 그때의 시사가 크게 변하여 일찍이 상종하며 교류하던 자들이 잇달아 배척당하고 쫓겨나게 되었다. 이행이 사사로 전주에 왔을 때 마침내 그와 모여 술이 반쯤 취하자 세상 변고에 감상되어 눈물이 흐르는 것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조의가 떠들썩하여 그를 중상하려 하니, 그(안처순)는 곧 병을 핑계로 집에 돌아가서 순수 가에 집을 짓고 살다가 당금이 차츰 풀리자 갑오년(1534, 중종 29)에 전적에 제배되었으며 봉상시 판관에 전직되어 졸하니, 나이 43세였다.⁴⁾

사제당은 문성공 안향(安珦, 1243-1306)의 직계 후손으로, 1513년 진사에 합격하였고, 1516년부터 홍문관정자 겸 경연관 그리고 춘추관 기사관으로 선발되어 조정에서 활동하였다. 1518년에 구례현감에 제수

3) 安璠, 『己卯錄補遺』, “世居南原。丁丑爲老母乞爲求禮縣監。”

4) 李德懋, 『靑莊館全書』, 「寒竹堂涉筆」, “安處順字順之。文成公裕之後也。父典籍璣。母兆陽林氏。生六歲。璣卒。仲父判書琛。盲1)于家。正德癸酉。舉進士。甲戌。登丙科。歷藝文檢閱弘文正字。戊寅。除求禮縣監。時事大變。所嘗從遊者相繼擯黜。李荇以使事。至全州。遂與之會酒。半酣。感傷世故。泣下不能禁。朝議譁然。欲中之。卽移疾而歸。築室鶉水之上。黨禁稍解。甲午。拜典籍。轉奉常判官。卒年四十三。”

되어 다음 해 일어난 기묘사화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 유배지에 간 기묘명현들을 찾아다니며 기묘사화의 고통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다. 『한죽당섭필』에는 이어서 사제당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어머니를 향한 효성 등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기묘사화와 관련된 기사를 전한다.

기묘사화 때 조광조가 능주로 귀양갔을 적에 구례 현감을 지내고 있었는데 달려가 만났고, 남쪽으로 쫓겨간 친구에게 모두 힘을 다하여 도와 주면서도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았다.⁵⁾

이상의 사제당에 대한 기록은 모두 기묘사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사제당이 기묘명현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놓인 것은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을 만들어 보관하였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기묘제현수필』이 『기묘제현수첩』보다 앞서 만들어졌지만, 이 글에서는 두 작품을 합쳐서 『기묘제현수첩』으로 표기한다.

먼저 『기묘제현수필(己卯諸賢手筆)』은 1518년 사제당이 어머니의 봉양을 이유로 외직을 청하여 구례현감으로 내려갈 때 동지들이 써주었던 전별시문을 모아놓은 것이다. 24명의 저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송서(送序) 6편, 한시 41수(19제), 간찰 3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이한 점은 기묘사화를 일으킨 핵심인물 남곤(南袞, 1471-1527)의 송별시까지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기묘제현수첩(己卯諸賢手帖)』은 기묘사화 이후 화를 입은 동지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놓은 것이다. 총 39통의 친필 서간이 실려있는데, 정암 조광조나 자암 김구(自庵 金絳, 1488~1534) 등 당대 최고 문인

5) 같은 책, “己卯士禍。趙光祖謫綾州。時爲求禮。馳往與會。知舊之擯于南者。亦皆極力資遺不少沮。”

들의 친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은 모두 1994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기묘제현수필·수첩』이 간행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가장 처음 시도된 것은 사제당이 서거하고 15년이 지나서이다. 1549년 당시 호남의 거두(巨頭)였던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가 쓴 「기묘제현첩(己卯諸賢帖)」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죽계 안전 군이 그 선군과 동지들이 주고받은 약간 편의 서간을 수습하고 나서 한 부로 편집하여 완성했다. 그리고 예전부터 소장하고 있던, 어머니 봉양을 위해 현감에 제수되었을 때 전별에 임하여 지어준 서시첩과 함께 도합 두 질로 만든 뒤, 나에게 글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⁶⁾

사제당의 아들 안전(安瑒, 1518-1571)은 전별시들과 기묘사화 이후 친필서간들을 묶어서 수첩으로 제작하려고 했으나, 『기묘제현수첩』은 임진왜란 이후인 1601년에야 완성된다. 안전이 이루지 못했던 작업을 5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한준겸(韓浚謙, 1557~1627)이 완성한 것이다. 「기묘제현서첩지(己卯諸賢書帖識)」에서 한준겸은 『기묘제현수첩』을 제작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상은 기묘제현이 그들의 벗 기재(幾齋) 안공(안처순)에게 보낸 서찰이다. (...) 공의 집안에 그 당시 친구들의 서찰 일부가 책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병란을 겪으면서도 탈이 없었으니, 이는 아마도 하늘이 우리의 유학을 만에 하나라도 보전하려 하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6) 金麟厚, 『河西先生全集』, 권11, 「己卯諸賢帖序」, “竹溪安君瑒。收拾其先君子同志之往復者。合若干紙。緝成一部。與舊藏賜養監縣時贈行序詩帖。共爲二表。屬麟厚以文之。”

신축년(1601)에 내가 사명을 받들고 남쪽 지역을 나갔다가 공의 서순
 응국 씨를 통해 처음으로 그 필첩을 보게 되었는데, 정암 선생 이하 명
 경현사의 필적이 모두 그 속에 들어 있었다. 삼가 읽은 다음 돌려주었
 는데, 마치 커다란 보옥을 얻은 느낌이었으므로 마침내 그것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한 개의 필첩으로 만든 다음 사우들에게 보여주었다.
 (...) 필첩의 이름을 『기묘제현수첩』이라 붙인 다음 석봉 한호에게 청하
 여 표지에 제자를 하였으니, 하늘이 이를 오래도록 전하게 하려는 뜻이
 이에 이르러 배가되었다 하겠다.⁷⁾

한준겸은 1601년 사도도체찰부사(四道都體察副使)에 제수되어 하삼
 도(下三道)의 군비 점검차 내려갔다가 기묘명현들의 필첩을 보게 되었
 다. 이를 기묘사화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던 사림의 정신을 보여
 줄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물건으로 여기고 왜란 중에도 잘 보존되어
 있던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다. 이에 한준겸은 필첩의 이름을 『기묘
 제현수첩』이라 정하였고, 한석봉에게 제첩 글씨를 청하였다. 김정국의
 『기묘당적』에서 안로의 『기묘록보유』, 한준겸의 『기묘제현수첩』으로 이
 어지는 흐름은 기묘명현을 추송해 나갔던 역사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7) 韓浚謙, 『柳川遺稿』, 「己卯諸賢書帖識」, “左即己卯諸賢手帖。... 公之家。有一時朋儕
 書札若田幅。藏在篋笥中。雖經兵燹。獲保無恙。殆天之所以壽斯文於萬一也歟。歲辛
 丑。余奉使過南中。從公之庶孫應國。始得見之。自靜庵先生以下名卿賢士手跡。咸萃
 于其中。伏讀以還。如獲拱璧。遂持以歸京師。作爲一帖。傳示士友間。... 命之曰己
 卯諸賢手帖。倚石峯韓濩題其面。天之所以壽斯文者。至此而又加一倍矣。”, 『기묘명
 현의 꿈과 우정, 그리고 기억(2020)』, p.214 번역문 재인용.

Ⅲ. 『근사록(近思錄, 1519)』과 『사제편(思齊篇, 1521)』

1. 봉성정사본 『근사록』과 『사제선생실기(思齊先生實記, 1820)』

사제당의 벼슬을 기묘사화 이전의 홍문관박사 또는 졸하기 직전의 봉상시관관으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벼슬은 구례현감(求禮縣監)이다. 그리고 구례현감으로서 최대 치적은 『근사록』을 발간한 것이다. 사제당의 『근사록』은 다른 『근사록』 판본들과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정훈·송일기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근사록』의 판본은 19종이다. 그 중 1종은 백문본이고 나머지 18종은 집해본이다.⁸⁾ 백문본(白文本)은 주희와 여조겸이 편집한 그대로 북송 선생들의 원문본이고, 집해본(集解本)은 주희의 재전(再傳) 제자 섭채(葉采)의 주석본인데, 가장 널리 사용된 통행본이다. 주희와 여조겸의 『근사록』 이후 많은 주석서들이 발간되었지만, 섭채의 주석이 가장 많이 읽혔다. 그리고 『근사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주해한 주석본은 섭채의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가 최초였다.

『근사록』은 1175년, 『근사록집해』는 1248년에 편찬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근사록』은 1370년(공민왕 19년) 진주목사 이인민(李仁敏, 1340-?)에 의해 간행된 판본인데, 처음부터 『근사록집해』 본으로 수용되었다. 우진웅에 의하면 『근사록집해』의 판본은 다음과 같다.

8) 우정훈, 송일기(2010), 「葉採의 『近思錄』集解本 板本考」, 『서지학보』 36, 재인용.

금속활자본	목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初鑄甲寅字本 - 1436년 ■ 初鑄甲寅字混入補字本 - 丙賜 [1519년] ■ 戊申字本 - 金聲久 丙賜 [1672년] ■ 戊申字混入補字本(1765년) ■ 壬辰字本(18세기) ■ 丁酉字混入補字本(18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元版覆刻本 - 晉州(1370년) ■ 初鑄甲寅字覆刻本系 - 鳳城精舍(1519년 간행), - 平安道 中和 淸涼書院(1566년 간행), - 禮山縣(1578년 발문), - 密陽 佔畢書院(1581년 간행) ■ 戊申字覆刻本系 - 戶曹判書 李敏敍 丙賜(1687년) - 奉化 三溪書院(1826년) ■ 慶州 玉山書院[18세기] ■ 成川府 [18世紀] ■ 기타 - 咸南 文川[16세기] - 기타 [16세기], [17세기] 각 1종

〈『근사록집해』 판본 목차9〉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목판본에서 역대 두 번째로 기록된 1519년 간행본이다. ‘초주갑인자복각본계’로 분류되어 있고 가장 오래된 것이 봉성정사본이다. 봉성(鳳城)은 구례의 별칭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연도와 지역으로 따져볼 때, 봉성정사본은 사제당이 구례현감으로 부임해서 간행한 판본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현존하는 『근사록』 판본은 총 19종인데, 목판본 중에서는 고려시대의 진주 목사 판본을 제외하면, 조선시대 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봉성정사본이다. 그러나 봉성정사본 『근사록』은, 오히려 조선에서는 간행 당시에 크게 활용되지 못하였다. 『증중실록』 증중 28년(1533) 11월 16일 기록에서 사경(司經) 이준경(李浚慶, 1499~1572)은 다음과 같이 아뢰다.

9) 우진웅(2016), 「퇴계 수택본 『근사록집해』의 전래경위와 가치」, 『서지학연구』 65, 188쪽.

인재를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요즘 와서는 『소학』과 『근사록』을 세상에서 크게 금하여 그 책을 끼고 다니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기묘의 무리로 지목하여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묘 때 사람이라 하여 모두 꼭 『소학』과 『근사록』을 읽었던 것도 아니라면 그 뒤의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유라면 모두 칼질을 하여버립니다. 가령 기묘년 때의 사람들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이야 나쁠 것이 뭐 있습니까?¹⁰⁾

이준경은 조선의 인재를 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책이 『소학』과 『근사록』임에도 불구하고, 기묘사화 이후로 금서(禁書)로 인식되어 사람들에게 외면받는다고 안타까워하였다. 이준경의 발언에 이어서, 기묘사림의 복권에 앞장섰던 구수담(具壽聃, 1500~1550)도 『근사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소학』과 『근사록』은 꼭 배워야 할 책인데도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찢어서 벽이나 바르고 배우려 들지 않으니, 그제 큰 폐단입니다.¹¹⁾

기묘사화가 일어난 지 14년이 지난 1533년에 이를 때까지 『소학』과 『근사록』이 금서로 여겨진 것을 한탄하는 기록을 통해, 기묘사화 직후 『근사록』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1519년 기묘년 여름에 봉성정사에서 『근사록』이 간행되었지만, 그해 말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근사록』은 금서가 되었고, 사제당에게도 다른 대안이 필요했다.

10) 『중종실록』, 76권, 28년 11월 16일, “浚慶曰：人材不可不培養，而近來《小學》、《近思錄》，爲世大禁，若有挾此冊者，則人皆指爲己卯之黨，而非笑之。己卯之人，未必皆爲《小學》、《近思錄》，而其後之人，疾其時之人，故其類皆兵之。己卯之人，雖曰不善，此書何非？”

11) 같은 곳, “壽聃曰：《小學》、《近思錄》，固當學之，而今則人所共見處，公然裂破而塗壁，不肯學焉，此弊大矣。”

신사무옥(辛巳誣獄)¹²⁾이 일어난 1521년, 사제당은 강학 공간으로 사제당(思齊堂)을 지었고, 동시에 ‘사제당’을 자신의 호로 삼았다. 그리고 사제당에서 사용할 교재로 만들기 위해, 직접 여러 경전의 글들을 모아 『사제편(思齊篇)』을 편찬했다. 사제당은 『사제편』을 교재로 삼아 후학들을 양성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제선생실기(思齊先生實記, 1820)』에서는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사제실기』는 「세계(世系)」, 「연보(年譜)」, 「저술(『사제편』 상·하)」과 「사제당제영(思齊堂題詠)」 등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5에는 『기묘제현수첩』의 모각본도 실려있어서 『기묘제현수첩』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사제실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제편」은 그동안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2. 『사제편』의 구성

사제당(思齊堂) 건립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임금의 교시를 끝내 지켜낸 것이었다. 사제당은 향교를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기묘사림들의 유배지를 다니면서 훈구파로부터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현감직을 사임했다. 애초 계획은 구례현감으로 향교의 최고책임자가 되어 『근사록』을 가르치는 것이었으나 기묘사화 이후 안처순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더 이상 공적 교육기관인 향교를 재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설 교육기관인 사제당을 세운 것이다. 비록 당시 내외적 제약 때문에 강학당으로 그쳤지만, 이후 향교와 서원운동에 교두보 역할을 했을 것이다.¹³⁾ 사제당이 학교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면, 『사제

12) 신사무옥(辛巳誣獄)은 안처겸(安處謙)과 그의 아버지 안당(安塘)을 역모죄로 거짓 고변당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안당과 그의 아들들이 처형당했지만, 안당의 손자 안로(安瑠)가 억울함을 상소하였고, 최종적으로 안당의 역모가 허위로 밝혀졌다.

편』은 핵심 교재를 제시한 것이다.

『사제편』은 사제당이 사서(四書)의 문장들을 가려 뽑아 만든 책이다. 유교 경전에서 문장들을 취해서 독자적으로 편찬한 책은 『사제편』이 조선에서 최초라 할 수 있다. 사서의 문장과 주석을 선택하고 편집한 수준도 탁월했고, 주자의 주석을 그대로 옮긴 『근사록집해』보다도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근사록』과 『사제편』의 공통점은 사서를 중심으로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상이하다.

원래 『근사록』은 상·하편 구분이 없고, 백문본은 권마다 제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집해본은 백문본의 서문과 『주자어류(朱子語類)』에 근거해 14권 각각의 제목을 간단하게 붙였다. 반면에, 『사제편』은 상·하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상권은 ‘위학(爲學)’ 편으로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권은 ‘효친(孝親)’부터 ‘상우(尙友)’까지 18개의 편으로 분류하고 각 편에는 한 장 또는 몇 개의 장들이 배속되어 있다.

『근사록』의 권제목과 『사제편』의 편제목은 ‘위학’이라는 제목만 겹친다. 특이사항은 주희가 「태극도설」을 『근사록』의 첫 권에 배치하고 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사제편』은 ‘도체’ 없이 ‘위학’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까운 것에서 생각함[近思]’이라는 본래 제목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¹⁴⁾ 편제목뿐만이 아니라 발췌한 내용은 아예 다르다. 『근사록』은 소강절을 제외한 북송 네 선생의 글 중에서 주로 ‘사서’에 관한 문장을 인용했는데, 『사제편』은 대부분 사서에서 직접 가져온 문장들이다. 『사제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3) 사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호남 사림들의 교육공간 및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14) 주희는 『근사록』이 성리학의 입문서로써 활용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입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태극도설」을 제일 앞에 놓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사제편』은 ‘근사’라는 취지에 맞게 과감히 ‘도체’ 편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상편(15)	『논어』 6개, 『맹자』 5개, 『중용』 1개, 『주역』 1개, 「중용장구서」, 「서명」
하편(36)	『논어』 21개, 『맹자』 11개, 『중용』 3개, 『이정전서』 1개
합계(51)	『논어』 27개, 『맹자』 16개, 『중용』 4개, 『주역』 1개, 「중용장구서」, 「서명」, 『이정전서』 각 1개

〈『사제편』의 출처〉

위 표에서와 같이 『사제편』은 『논어』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하권은 「향당」 편에서만 9개의 문장을 활용하였다. 여기에서 기묘사림이 주도했던 향약운동을 위해 『사제편』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맹자』 16개 문장이고, 『중용』의 4개 문장과 주희의 「서문」을 실었다. 사서 중에서 『대학』의 문장이 전혀 실리지 않은 것은 ‘군주학(君主學)’이 아닌 ‘군자학(君子學)’을 지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서를 제외하고 인용된 오경(五經)은 『주역(周易)』이 유일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와 「서명(西銘)」과 『이정전서(二程全書)』의 글인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서명」이다. 왜냐하면 『사제편』과 『근사록』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글은 「서명」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사제편』은 ‘위학’을 상편 전체의 제목으로 하고 그 밑에 15개의 문장들을 배치했다. 섭채의 『근사록집해』는 1권의 제목을 ‘도체’로 2권을 ‘위학’으로 삼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라는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위학’이라는 제목은 동일하다. 「서명」은 『사제편』 상권의 가장 마지막 장으로 배치되어 15장으로 구성된 ‘위학’ 편을 마무리한다. 상권은 모두 ‘위학’이라는 주제로 편성되었지만, 하권은 ‘효친(孝親)’부터 ‘상우(尙友)’까지 18편으로 주제를 나누었다.

IV. 『사제편』의 우정론

1. ‘이문회우(以文會友)’의 우정

『사제편』은 『사서대전(四書大全)』에서 원용한 글이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논어』나 『맹자』의 문장을 적고, 바로 밑에 주희의 『사서집주(四書集註)』 주석을 붙여놓았다. 그리고 다시 그 밑에 ‘부주(附註)’를 붙였는데, 사제당이 『사서대전』에서 직접 선별하여 엮은 주석들이다. 사제당은 경연관을 수년 동안 역임했기 때문에, 『사서대전』을 비롯한 여러 성리학 문서들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사제편』에서는 사서(四書)의 원문만 발췌하거나, 『사서집주』의 주석을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서대전』에 있는 주석들까지 ‘부주’로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하권의 여섯 번째 ‘봉우’ 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사제편』 하권의 18편은 우선 오륜(五倫)에서 시작한다. 오륜의 순서대로 첫 번째 ‘효친(孝親)’ 편과 두 번째 ‘사군(事君)’ 편이 가장 앞에 위치하는데, 세 번째에는 스승 섬김에 대한 ‘사사(事師)’ 편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네 번째로 ‘부부(夫婦)’ 편이 위치하고, 다섯 번째는 오륜 중 네 번째 ‘장유(長幼)’를 대신해서 ‘형제’ 편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오륜의 마지막인 ‘봉우’ 편이 나오는데 『논어』에서만 3개의 문장을 인용하였다. 첫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다.

증자가 말하길, “군자는 글로 벗을 모으고, 우정으로 인을 채운다.”
曾子曰。君子以文會友。以友輔仁。¹⁵⁾

15) 이후 번역문은 안재원, 엄국화의 공동번역이다.

『논어』 「안연」 편 24장은 증자의 말인데, 군자의 벗 사귀에 대해 논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글로 벗을 모은다’라는 표현이다. 군자가 친구를 사귀는 수단은 다름 아닌 ‘글(文)’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제당이 동지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놓은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은 ‘글을 통한 군자들의 사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실질적인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에 대한 『사서집주』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주자가 말하길, “배움을 익혀서 벗을 모으면 도는 더욱 밝아지고, 좋음을 취해서 인을 채우면 덕은 날로 나아간다.”¹⁶⁾

주자는 ‘문(文)’을 강학(講學)으로 풀이했는데, ‘강학’은 벗 사이의 토론으로 볼 수도 있다. 서로 강학하는 벗의 관계는 나이가 비슷한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려있는 관계였다. 비록 『기묘제현수필』이나 『기묘제현수첩』에는 순수한 학문적 토론이 실려있지 않지만, 글을 통해서 맺어진 우정의 관계 또는 글을 통해서 더욱 공고해진 우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제편』은 사서의 원문과 『사서집주』의 주석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대전』의 해설까지 ‘부주(附註)’라고 이름붙여 달아놓았는데,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해설만 덧붙였다.

24-2. 각현 채씨가 말하길, “글로 벗을 모으는 앞에는 이르는 방법이고, 우정으로 인을 채우는 힘써 실천하는 일이다.”¹⁷⁾

24-3. 신안 진씨가 말하길, “사람이 배움을 익히고 덕을 닦기 위해서는

16) 朱子曰。講學以會友。則道益明。取善以輔仁。則德日進。

17) 覺軒蔡氏曰。以文會友。致知之法。以友輔仁。力行之事。

모두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학문을 익히고 그 앞에 이르고, 더욱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인을 다하고 실천에 힘쓰면, 배움이 진전되고 덕 또한 나아가게 된다.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나의 앞과 실천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니, 이를 우정의 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이다.”¹⁸⁾

24-4. 동양 허씨가 말하길, “인을 실천하면서 벗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외롭고 꺾꺾하며 들은 바가 적어 고집만 세지고, 벗을 모으면서도 글로 하지 않으면 여럿이 종일토록 함께 지내면서도 정의를 논하지 않는 잘못이 있게 된다.”¹⁹⁾

『사서대전』에서는 「안연」 편 24장에 대해서 5개의 해설을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3개의 해설만 인용하였다. 이 해설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글을 통해서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仁)을 실천하는 우정의 관계’이다. 실제로 사제당은 기묘사화 이후 현감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도 적소에 있는 벗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고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글에서 제시한 뜻 그대로 ‘벗으로써’ 인을 채우는 실천을 했던 것이다.

기묘명현들을 끝까지 보살피고 그들과의 글들을 『기묘제현수첩』으로 남긴 것이야말로 ‘이문회우’의 실천이다. 사제당이 『사제편』을 지은 것은 이러한 실천적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1491~1553)의 태극논쟁이나, 후대 퇴계 이황(退溪李滉, 1501~1570)과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1527~1572) 사이의 사단칠정논

18) 新安陳氏曰。人之講學修德。皆有資於朋友。既資朋友以講學而致其知。尤資朋友以輔仁而力於行。則學進而德亦進。朋友爲吾知行之助如此。其斯所謂益友乎。

19) 東陽許氏曰。爲仁而不取友以爲輔。則有孤陋寡聞之固。會友而不以文。則有羣居終日。言不及義之失。

쟁과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 유학사의 가치 있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이경지(久而敬之)’의 우정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정에 관한 격언들은 지식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런데 동아시아 지성사에서 ‘우정’에 관한 폭넓적인 관심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라는 서양 예수회 선교사가 번역한 『교우론(交友論)』에서 시작되었다. 『교우론』은 마테오 리치의 독창적 저술이 아니라 당시에 유럽에서 유행하던 우정에 관한 격언들을 100개의 문장으로 선별하여 한문으로 옮긴 책이다. 마테오 리치의 대표작은 『천주실의(天主實義, 1603)』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교우론』의 파급효과가 훨씬 대단했다. 비록 임진왜란 때문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17세기 초반부터 이미 예수회의 한역서학자들이 조선 땅에 널리 유포되어 읽혔다.

『천주실의』를 비롯한 교리서들은 성리학만을 정학으로 삼았던 조선 성리학자들에게 비판이 대상이 되었지만, 『교우론』은 다른 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의 과학서적과 더불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왜란과 호란 이후 피폐해진 경제상황에서 예송논쟁이 벌어지면서 붕당정치가 극에 달하게 되었던 때에, 붕당론(朋黨論)으로 변질된 동양의 붕우론(朋友論)을 대체할 새로운 우정론이 『교우론』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교우론』이 처음 공개된 것은 1595년이고, 정식 출간된 것은 몇 년 뒤의 일이다. 그런데 『사제편』의 ‘붕우’ 편에서는 16세기 초반에 ‘붕우’에 관한 전통적인 우정론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했다. 경전의 내용을 편집한 것이지만 우정에 관한 새로운 관점에서 『논어』의 문장들을 선별했다

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봉우 편 두 번째 문장은 「공야장」 편 16장으로 다음과 같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안평중은 사람들과 우정을 잘 지키는구나! 오래 되어도 그를 공경스럽게 대했다!”

子曰。晏平仲。善與人交。久而敬之。

사실 이 문장에서는 친구를 의미하는 ‘봉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교’자가 ‘벗의 관계’를 나타낸다. 고전에는 본래 ‘우정(友情)’이라는 한자어가 없다.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의 제목도 원래는 『우론(友論)]이었다고 하나, 나중에 ‘사귀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교우론』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안평중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與人)’ 잘 사귀었다(善交) 또는 ‘우정을 잘 지켰다(善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오래된 관계[久而]’에서도 ‘공경했기[敬之]’ 때문이다. 바로 밑에 있는 『사서집주』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주자가 말하길, “안평중은 제나라의 대부이고, 이름은 영(嬰)이다.” 정자가 말하길, “사람이 오래 사귀면 공경심이 쇠해지니, 오래되어도 공경스럽게 대함은 우정을 잘 지키는 것이다.”²⁰⁾

먼저 안평중의 나라와 지위, 이름을 소개했다. 그리고 ‘오래됨’과 ‘공경함’의 비대칭적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공경’이 우정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 개념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개의 『사서대전』 해설을 소개하는데, 총 네 개의 해설 중에서 앞의 두 해설만 선택했다. 첫 번째 해설은 다음과 같다.

20) 朱子曰。晏平仲。齊大夫。名嬰。程子曰。人交久。則敬衰。久而能敬。所以爲善。

16-1. 남헌 장씨가 말하길, “성인(공자)께서 예괘(豫卦) 육이효(六二爻)의 ‘돌처럼 견고해서 하루가 다 지나가지 않아도, 곧고 길하다.’를 논하여 ‘군자는 위로 사귀되 아침하지 않고 아래로 사귀되 오만하지 않으니, 기미(하늘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림의 이유도 쇠하기 쉬운 법이니, 그 뜻을 바르게 하는 자가 아니면 지킬 수 없다. 오래 사귀어도 공경함이 쇠하지 않는 것을 또한 잘 사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인이 사람에게 대해서 비록 하나의 선이지만 이를 기록해 두는 것은 이것이 천지의 마음이다.”²¹⁾

남헌 장씨의 해설을 제시하면서 『주역』 예괘의 육이효에 대한 풀이와 연결하였다. 『근사록』과 『사제편』의 큰 차이 중 하나는 『근사록』이 『주역』의 해석을 많이 인용했다는 것이다. 『근사록』이 송대의 『논어』 또는 성리학의 입문서라고 하지만, 『주역』 해석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서 초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은 아니었다. 반면에 『사제편』은 『주역』의 인용에 대해서는 매우 절제하고 있다. 『주역』 경문의 인용은 ‘위학’ 편의 12장에 한 번 허용되었을 뿐이고, 해설에서도 『주역』의 해설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여기서 『주역』의 해설을 옮긴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다.

16-2. 면재 황씨가 말하길, “친구는 인륜 가운데 하나이다.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고와 충고로써 지켜주고, 선으로써 서로를 북돋는다. 한 번이라도 공경하게 대하지 않으면 우정의 도리를 잃을 것이다. 오직 오래 사귀어도 공경하게 대하면 그 사림이 오래될수록 더욱 가까워진다. 어깨를 치고 소매를 잡는 것으로 서로 죽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술과 밥과 놀이로 서로 어울려 다니며 죽으나 사나 서로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많지 않

21) 南軒張氏曰。聖人論豫之六二。介于石。不終日貞吉。以爲君子上交不諂。下交不瀆。爲知幾。蓋交道易以凌夷。非正其志者。莫之能守也。交久而敬不衰。亦可謂善矣。聖人於人。雖一善必錄。天地之心也。

다. 공부자께서 안평중이 우정을 잘 지킨다고 칭찬한 것은 친구를 사귀는 도리가 여기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²²⁾

두 번째 해설은 면재 황씨의 말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역시 ‘공경[敬]’이다. ‘경(敬)’은 정이천부터 주자까지 이어지는 학통에서 가장 강조되는 개념이다. 조선에서는 퇴계가 ‘경’의 철학을 견지했다고 평가되는데, 이것은 기묘명현을 비롯한 퇴계 이전의 조선의 도학자들이 공유했던 주요 가치였다. 사제당은 이것을 붕우 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여겨 이러한 주를 달았던 것이다. 경고와 충고로써 지켜주고 선으로써 서로를 북돋는 것도 사제당이 기묘사화 이후 동지들에게 보여주었던 실질적인 우정의 모습, 경건한 태도였다.

3. ‘아빈불배(我殯不拜)’의 우정

‘붕우’ 편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논어』의 문장은 「향당」 편 14장이다. 앞서 두 번째 ‘구이경지(久而敬之)’의 우정에서 오래 되어도 공경해야 우정이 유지된다고 논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공경’의 실재를 보여준다.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는 친구가 죽었지만 상주가 될 친족이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친구에게 선물을 받은 상황이다.

친구가 죽자 그를 돌려보낼 곳이 없다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집에 빈소를 차리라.’라고 하셨다. 친구의 선물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낸 고기 이외에는, 비록 수레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22) 勉齋黃氏曰。朋友人倫之一。可不敬乎。攝以威儀。相勸以善。一有不敬。則失朋友之道矣。惟其久而敬也。則愈久而愈親。拍肩執袂。以爲氣合。酒食遊戲相徵逐。以爲生死不相背負。未有能全交者也。夫子美平仲之善。交友之道。盡於此矣。

朋友死。無所歸。曰。於我殯。朋友之饋。雖車馬。非祭肉。不拜。

바로 이어지는 『사서집주』의 주석에는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주석만 편집되어 있다.

친구란 재물을 함께 쓰는 사이이다. 따라서 수레와 말과 같은 것이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제사를 지낸 고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친구의 돌아가신 조상을 높이 여겨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대하는 것이다.²³⁾

이것은 두 번째의 상황인 친구에게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것인데, 먼저 우정에 대해 ‘통재지의(通財之義)’, 즉 재물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수레나 말과 같이 고가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불배(不拜)’, 즉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인 것은 제사를 지낸 고기에 대해서는 절(拜)을 함으로써 공경을 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배’의 우정인데, ‘아빈(我殯)’의 우정은 이어지는 『사서대전』의 해설에서 설명된다.

14-1. 호씨가 말하길, “친구는 인륜의 하나이다. 그 죽음에 부족(父族)·모족(母族)·처족(妻族)이 없고, 방계 친족으로 장례치를 사람이 없는 것을 일러 돌려보낼 곳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친구라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장례를 맡지 않는다면 구덩이에 던져져 굴러다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 빈소를 차리라.’라고 말한 것이다.”²⁴⁾

『사제편』에서 생략된 『사서집주』의 주석에서는 “친구는 의리상 결합

23) 朋友。有通財之義。故雖車馬之重。不拜。祭肉則拜者。敬其祖考。同於已親也。

24) 胡氏曰。朋友。人倫之一。其死也。無父族母族妻族。無旁親主之。是無所歸也。爲朋友者。不任其責。則轉於溝壑而已。故曰於我殯。

된 관계이다. 죽어서 돌아갈 곳이 없으면 빈소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²⁵⁾라고 하였는데, 장례 치를 친족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의리’상 그 친구의 빈소를 차리지 않을 수 없음에 대하여 부연 설명한 것이다. 이것이 ‘아빈’의 우정이다. 「향당」 편 14장의 『사서대전』 해설은 총 4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개만 옮겨놓았다. 두 번째 해설 역시 ‘의리’에 대한 종합적인 부연설명이다.

14-4. 운봉 호씨가 말하길, “친구는 의로움으로 맺어졌으니, 마땅히 빈소를 차려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의(義)이고, 또한 마땅히 예물을 준비하여 예를 갖추는 것이 의(義)이다. 의로움에 따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거절할 수 없고, 의로움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²⁶⁾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봉우’ 편의 마지막 장에 『논어』의 「향당」 편이 배치된 이유이다. ‘봉우’ 편은 『사제편』 하권의 여섯 번째 편에 위치하면서 먼저 소개된 ‘오륜’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봉우’ 편의 세 개의 문장 중에서 마지막을 「향당」 편의 문장으로 배치했는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제사(祭祀)’, ‘거향(居鄉)’, ‘음식(飲食)’, ‘의복(衣服)’ 그리고 ‘애유상(哀有喪)’ 편까지 「향당」 편의 문장을 인용하였다. 오륜의 마지막인 봉우 관계를 마무리하면서 「향당」의 ‘아빈불배’의 우정을 논한 것은, 『사제편』의 저술 목적이 기묘사림들이 주도했던 향약운동 또는 유교의 지방화와 깊이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제편』 상권이 도학(道學) 중심이라면, 하권은 예학(禮學) 중심이라 할 수 있다. 16세기 사단칠정논쟁으로 도학이 완성되었고, 17세기에 이르러 예송논쟁으로 조선의 예학이

25) 朋友。以義合。死無所歸。不得不殯。

26) 雲峯胡氏曰。朋友既以義合。當殯而殯。義也。當饋而饋。亦義也。義所當爲。不可辭。義所當受。不必拜。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 예학의 시초에 『사제편』이 있었던 것이다.

V. 나가는 말

조선 초기의 유학은 군주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교 경전을 해석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과거 시험에 반영되었는데, 유교 경전의 해석도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기치인(修己治人)’에서 통치를 강조하는 ‘치인’ 편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림 세력의 등장으로 유교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생겨난 것이다. 사림 세력은 ‘치인’도 중요하지만 군자의 내면적인 덕의 수양을 강조하는 ‘수기’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사림 세력은 유교 경전을 ‘치인’의 관점에서뿐만이 아니라 군자를 위한 ‘수기’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을 제도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사제당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향약과 서원들이다. 향촌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소위 ‘군주론’에 대한 이해보다는 ‘군자론’에 입각한 실천이었기 때문이다.

사림의 이런 시도는 당연히 경기 지역에 물적 기반을 둔 훈구 세력에게는 매우 위협적이었다. 외척을 중심으로 한양에 물적 기반으로 둔 훈구 세력이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방방곡곡 향촌에 토대를 구축한 사림 세력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였기 때문이다.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충돌은 필연적이었고, 사림 세력은 정치적인 꺾박을 견뎌내고 결과적으로 승리하였던 것이다. 그 시작점에 『사제편』이 있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承政院日記』.

安處順, 『思齋篇』, 국회도서관.

金麟厚, 『河西先生全集』, 한국고전번역원.

金正國, 『思齋集』, 한국고전번역원.

宋穉圭, 『剛齋先生集』, 한국고전번역원.

安璠, 『己卯錄補遺』, 한국고전번역원.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고전번역원.

韓浚謙, 『柳川遺稿』, 한국고전번역원.

이광호 역(2004), 『근사록집해』, 아카넷.

윤용남 외(2018), 『(완역)성리대전』, 학교방.

최봉수·서수용(2003) 역, 『국역 옥계선생문집(玉溪先生文集)』, 풍천노씨문효공파중문화.

김덕수(2019), 「제주 유배객 충암(沖菴)의 교유와 감춰진 이름들」, 『인문논총』 76,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유리(2021),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연구」, 『한국학』 44, 한국학중앙연구원.

우정훈·송일기(2010), 「葉採의 『近思錄』 集解本 板本考」, 『서지학보』 36, 한국서지학회.

우진용(2016), 「퇴계 수택본 『근사록집해』의 전래경위와 가치」, 『서지학연구』 65, 한국서지학회.

Ahn Cheosun (安處順, 1492-1534)'s Friendship

Uhm, Kook-hwa*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the activities of Sajedang Ahn Cheosun (思齊堂 安處順, 1492-1534) in the first half of the sixteenth century and reassess the meaning of his work, *Sajepyeon* (思齊篇). The fact that Ahn Cheosun was a Gimyoemyeonghyeon (己卯名賢) and the author of *Gimyomjehyeonsucheop* (己卯諸賢手帖) has received some scholarly attention, but he has rarely been properly evaluated for his publication of *Guensarok* (近思錄) as a officer and his writing of *Sajepyeon* immediately after the Gimyoŏsahwa (己卯士禍). This study focuses on three texts from *Sajepyeon*, which consists of texts and commentaries selected directly from the *Four Books*. The three sentences, taken from *the Analects*, can be summarized as the friendships of 'Imunhoewoo (以文會友)', 'Guigyeongji (久而敬之)', 'Abinbulbae (我殯不拜)' which are the scriptural basis for the friendship theory of Ahn Cheosun.

Key Words

Ahn Cheosun (安處順), Sajedang (思齊堂), *Sajepyeon* (思齊篇), *Guensarok*, friendship

논문접수일: 2024.5.26., 심사완료일: 2024.6.16., 게재확정일: 2024.6.18.

*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Humanit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E-mail: goocaa79@gmail.com

